

## 사우회 下半期 행사 일자 확정



**골프대회 9/16(수), 낚시대회 10/8(목)**  
**등산대회 10/21(수), 바둑대회 11/5(목)**

낮에는 청명한 하늘 아래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밤에는 풀벌레들 소리가 무더웠던 여름을 잊게 하는 가을, 추석명절이 들어있는 9월에 접어들면서 사우회

의 하반기 행사가 시작됐고 골프동호회가 하반기 행사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골프대회는 9월16일(수)에 충북 진천

에머슨 골프클럽에서 치러졌는데 8개 팀 32명이 참석해서 실력도 겨루고 친교도 나누었다. (자세한 결과는 사우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0월에는 3개 행사가 열린다.

낚시대회가 10월8일(목), 문화탐방은 10월16일(금), 등산대회는 10월21일(수)에 예정돼 있다. 낚시대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포와 강화 일대를 답사한 뒤 장소가 정해지면 낚시회원 개개인에게 전화로 통보한다.

문화탐방은 당일치기를 할 수 있는 수도권 일원의 적당한 곳을 물색하고 있으며 장소가 결정되면 부문별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석자를 섭외할 예정이다.

등산대회는 북한산 둘레길을 걷게 되는데 자세한 차편과 출발 장소는 엽서를 통해서 알려 드릴 계획이다.

바둑대회는 달을 넘겨 11월5일(목)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오전 10시에 대진(對陣)을 추천한다.

사우회가 주관하는 가을철 행사에 참석하면 젊었던 시절 동고동락하던 옛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행복을 맛보게 되므로 회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3社 사우회 바둑대회 10월12일(월) 열려



제3회 MBC-KBS-SBS 3社 사우회 바둑대회가 10월12일(월)에 열린다. 이번 바둑대회를 주최하는 SBS사우회

차례씩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퇴직 방송인들의 친목을 다지고 우의를 나누는 행사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관형 사무처장은 8월 19일, MBC사우회 사무처로 전화를 걸어 제 3회 대회를 10월12일(월)에 여의도 '송천기원'(02-785-0112)에서 개최한다고 알려 왔다.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3社 사우회 바둑대회는 SBS와 KBS가 한

## 'MBC플러스미디어', 'MBC플러스'로 새 출발



영역 확장에 나섰다.

2001년 케이블 방송으로 시작한 MBC플러스는 MBC드라마넷과 MBC스포츠플러스를 비롯하여 MBC에브리원, MBC뮤직, MBC퀵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5개 채널을 운영하며 다채널 멀티미디어 기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

MBC플러스미디어(사장 한윤희)가 8월 3일(월) 회사명을 'MBC플러스'로 바꾸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사업

며 지난 2014년에는 매출액 2천억 원을 돌파하여 미디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윤희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변경을 제 2 도약으로 삼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며, 신규 사업의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신뢰받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옥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웹사이트 주소는 이전과 동일하다

**MBC PLUS**



## 유기철 회원, 방문진 제10기 이사 취임

유기철(보도) 회원이 8월 17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제10기 이사로 선임됐다. 유회원

은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송대학교 방송미디어학부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완기 전 울산MBC 사장도 이사

로 선임됐다. 방문진 이사진들은 8월 21일 회의를 열어 고영주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제10기 이사들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 3년이다.

## 키자니아, 사우회 회원 어린이에게 특별 할인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사우회 회원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키자니아는 8월1일부터 '사우회 회원수첩을 소지한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4명까지 입장료를 30% 할인해 주고 있다.

MBC 자회사인 MBC플레이비(대표이사 진현숙)가 운영하는 '키자니아 서울'은 "승무원, 파일럿, 의사, 경찰관, 앵커, 배우, 외교관, 요리사, 디자이너, 패션모델" 등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있는 상점-빌딩-레스토랑-방송국-

자동차-거리의 가로수 등 모든 것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물의 2/3 사이즈로 축소되어 있다. '키자니아 서울'은 전 세계 16개국 19개의 키자니아 가운데 최대 규모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어린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우회 창립  
25주년 기념

## 'MBC에 물어 둔 이야기'를 발굴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MBC 재직 중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에피소드 등 <그 시절 잊지 못할 이야기>들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겪은 얘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일화

도 좋습니다. 實名도 좋고, 이니셜로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기억력이 더 쇠잔해지기 전에 가슴에 묻어둔 사연들을 꺼내서 회원들과 공유하시지 않겠습니까? 길이나 형식의 제한이 없으며 보내주신 이야

기는 'MBC에 물어 둔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2016년 정기총회 때 회원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사우회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경·조사

## ■ 팔순 ■

고병조(관리)11/07 최승우(업무)11/15 김옥균(편제)11/25 이승대(전주)11/30

## ■ 고희 ■

추성춘(보도)10/07 이병구(보도)10/09 박홍배(전주)10/14 박한성(관리)10/16  
윤종옥(관리)10/23 최창섭(ANN)11/02 박정섭(편제)11/04 박성배(편제)11/07  
이승재(기술)11/21 전종철(관리)11/26

## ■ 회갑 ■

김준원(기술)10/06 李勝烈(편제)10/06 소원영(편제)10/15 강호진(편제)10/30  
서영호(보도)11/03 金晶洙(편제)11/05 채규태(편제)11/05 장을라(관리)11/06  
김평호(편제)11/09 이학규(편제)11/17 박신서(편제)11/25

## ■ 결혼 ■

손동용(편제)장남8/08 서은선(ANN)장남8/16 박두식(관리)장녀8/22  
손동용(편제)차남9/05 정 준(관리)장녀9/06 조준희(대전)차녀9/18  
서영호(보도)장녀9/19 김동수(보도)장남10/3

## ■ 부음 ■

류상철(편제)모친상7/22 안현덕(관리)장인상7/27 윤 혁(편제)장인상8/02  
최성금(관리)부친상8/16 신견옥(관리)모친상8/23 오정수(기술)장모상8/27

## 회원 / 회비관리

## ■ 신규입회 ■

丁炳壽(기술) 010-6780-4622 02-312-4622  
서초구 효령로12길 20-10, 1층 (방배동)  
文振英(보도) 010-2272-2416 02-3461-9876  
서초구 강남대로30길74, A-104 (양재동, 대영빌라)  
李興澈(기술) 010-8639-1147 02-2642-2337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2가길116, 두란A 602호

## ■ 평생회비 ■

임주완(ANN)7/14 정명규(편제)7/29

## ■ 연회비 ■

7월 : 김경준(15~17,80세완납) 김성희(12~21,80세완납) 김은택(10~19,80세완납)  
김춘규(15) 김태인(15~18) 백성원(15) 염재용(16,80세완납) 이영자(13~15)  
임영규(15) 장영준(13~15) 조은국(14~15) 하광언(15) 황기찬(15)8월 : 김동성(17~19) 김삼량(14~15)故노종규(13~14) 방영희(13~15)  
윤호찬(14~15) 이연구(13~15) 丁炳壽(기술,15) 지덕환(14) 진경현(13~15)

## 전화/주소 변경

편제 : 김양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85번길27, 1층 (심곡1동)

김태인 010-4221-2161

박오순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678번길 51 (양택리)

이교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588-3

장기옥 서대문구 증가로29길 12-4, 302호 (북가좌동,희망주택)

장철수 파주시 산남로107번길 62 (산남동)

보도 : 김상기 010-5235-7005

윤호찬 010-8879-8866

ANN : 김애립 010-3783-7053

기술 : 방기천 광진구 강변역로4길 56, 102-804 (구의동,광진해모리버뷰)

임봉주 강남구 논현로205, 4-302 (도곡1동 도곡한신A)

임준석 강동구 고덕로 130, 117-401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하경목 강서구 화곡로 347, 101-1701 (화곡동,그랜드아이파크)

업무 : 이연구 010-9114-0467

이종모 충남 당진시 정미면 윤정로 549-21 (매방리)

관리 : 김병수 울산광역시 동구 물목길 2 (주전동)

김성익 구로구 경인로 248-14, 101-702 (오류동,동부A)

박삼열 010-5338-8645

오양수 성북구 북악산로 851, 106-501 (정릉동,정릉2차e편한세상A)

이경기 010-5309-6253

이기준 마포구 방울내로11길 25, 4층 (망원동)

이용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127번길 15, 105-1103 (동광A)

정보균 010-3218-0159



노 종 규(편제)

8월6일(목) 노환으로 별세. 향년 88세. 1969년 MBC-TV 개국 때 입사해 1995년까지 미술부에서 근무했다. 1958년에 '한국예술영화촬영소' 세트맨으로 출발해 KBS-TV를 거쳐 MBC에서 정년퇴임할 때까지 37년 동안 현장을 지킨 세트 제작 전문가였다. 올해 6월에 실시된 강화도 '회원문화탐방'때도 참석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체력 때문에 탐방 도중에 기권해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김 상 기(보도)

8월16일(일) 신장요도암으로 별세. 향년 70세. 2013년 4월에 암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했으나 10개월 뒤에 재발해 그동안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1973년 보도국 기자 8기로 입사했으며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다. 2011년 가을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을 담은 시집 '아내의 묘비명'을 출간했으며 별세하기 며칠 전 모교(대전고)에 1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 MBC C&amp;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MBC C&amp;I

## 회/원/동/정



신찬철(관리)

7월21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신승철(申承澈)로 바꿨다. 승철은 어렸을 때 이름인데 호적을 정리할 때 착오가 생겼으며 60여년 만에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김현철(편제)

8월15일,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공연된 광복 70주년 기념 시극(詩劇) '세발의 총성'에서 고종황제 역을 맡아 2분 30초 간 막힘없이 대사를 소화해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태인(관리)

1999년 미국 매릴랜드로 이민 간지 16년 만에 부인과 함께 일시 귀국했다. 8월 21일(금) 옛 동료였던 박태환, 조강래 회원과 함께 사우회 사무실에 들러 회원들의 안부도 묻고 자신의 근황도 들려주었다. 10월 중순 미국으로 돌아간다.



김강정(보도)

(사)선진사회만들기 연대공동대표. 9월 8일(화)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복 70년과 우리의 진로'를 주제로 '선사연역사포럼' 창립 기념 강연회를 열었다.



유희근(보도)

'세계 서예비엔날레' 사회 저명인사부문에 유 회원의 작품이 선정됐다. 출품작 내용은 萬國春風 百花舞(천하에 봄바람이 불어오니 온갖 꽃들이 춤을 춘다)이며 10월 한 달 동안 전주 '서예의 전당'에 전시된다.



김승수(편제)

따님 옹희(33.작곡가) 씨가 독일 베를린에서 주관하는 '2015베를린 라인스베르크 작곡상'(상금 1만 유로)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베를린 예술대학원에서(독일정부 장학생) 공부했으며 2008년 한국음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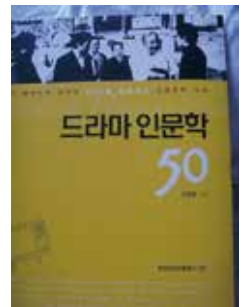
로부터 실내악 분야 최우수 작곡상을 받은 촉망받는 차세대 작곡가다.



오명환(편제)

MBC 재직 때는 편성 전문가로, 대학에서는 명강의 교수로 소문난 오 회원이 TV드라마 50년사를 맞아 드라마

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반추하고 드라마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성찰을 담은 책, '드라마 인문학 50'을 8월에 출간했다.



## 동/호/회/소/식

-문기회(회장 이재은) 7월17일(금) 정례모임에서 신형창, 김부영 두 선배의 8순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

고 술 한 병씩을 선물하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동산클럽(회장 박한성) 7월22일(수)~23일(목) 이틀 동안 양주 문화동산 펜션 한棟을 빌려 회원들을 위

한 특별행사를 가졌다.

-낙시클럽(회장 이승문) 7월30(목)~31일(금) 양 일간 아산 봉재저수지에서 노서을 고문 등 16명이 참석해 밤낙시 행사를 가졌다. 정종국

(관리) 회원이 31Cm 짜리 월척을 낚은 것을 비롯해 박병선(편제) 회원이 30.8Cm, 안호선(관리) 회원이 30.5Cm짜리 월척을 기록했다.

## ●살며 생각하며●

## 허풍(虛風)



정진(보도)

조선일보 맛있는 漢字 제62호(2015년 5월 다섯째주)에 실린 栗谷全書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人之過失 多由言語 言必忠信 發必以時> 「사람의 과실은 대부분 말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말은 반드시 진실되고 미덥게 하며 때에 맞게 하라」 허풍 치지 말고 말을 잘해야 한다는 뜻인데, 풍을 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칭찬을 듣는

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풍이 세기로는 漢詩가 한 몫한다. 推句集에 나오는 詩다. <五老峰爲筆 三湘作硯池 青天一張紙 寫我腹中詩> 「명산 다섯 봉우리로 붓을 만들어 세 갈래로 모여든 큰 연못물로 먹을 갈아 푸른 하늘 같이 맑고 깨끗한 큰 종이에 내 마음 속의 시를 쓰리라」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풍인데 내용이 너무 아름답다. 풍도 이 정도면 급이 다르다. 또 있다. 거짓말하고 칭찬 듣는 말 '萬壽無疆'이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좋아한다. 지

난 7월 보도국 선배인 신형창-김부영 씨가 팔순을 맞으셨다. 문기회(문화방송기자회) 정례 모임(7월17일)때 이재은 회장이 정성들여 준비한 케익에 8개 초를 꽂아 불을 켜고 이 두 분의 팔순을 축하하면서 신대근 선배님이 건배사를 했다. "만수무강 하시라"며 단체로 풍을 쳤다. 풍치는 소리에 두 분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도 좋아하셨다. 그런데, 사실 만수(萬壽)는 이야기가 나가도 너무나 갔다. 백수도 아니고 천수도 아니고 만수라.. 고사에 아흔아홉 살을 白壽

라 하고 백열 살을 皇壽라 하고 백스무 살을 滿壽라 하였다. 백스무 살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그래 가자. 갈 때가 되었다. 앞장서라 여쭙어라" 하였다니 백스무 살이 희망 연수다. 가 능할 듯도 하다. 8월에는 김창식 선배님도 팔순을 맞으셨다. 김선배님을 비롯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사우회 선배님들 건강도 함께 기원합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사모 남 손 꼭~ 잡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만수무강 하십시오. 풍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 방송 유허비(遺墟碑)를 아십니까?



9월3일은 '방송의 날'이다. 기념식, 전야제, 우수 작품 시상식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지만 '방송유허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현역 방송인은 물론 퇴직한 방송인들도 유허비의 존재나 의미를 모르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해마다 4월 하순이면 정동1번지 우리나라 첫 방송터에 세워진 유허비 앞에서 '한국방송인동우회'주최로 기념식을 갖는다.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한국 방송의 출생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1927년 2월 16일 사단법인 경성방송국(JODK)이 개국할 당시 서울 인구는 30만명, 라디오 등록 대수가 1,230대였으며 라디오 청취료가 매월 2엔(당시 쌀 한가마니 5엔)이었다고 한다. 당시 라디오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을 요즘으로 치면 고급 승용차를 가진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 경성방송국의 흔적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지만 방송을 사랑하는 선배들의 노고로 1987년 유허비가 제작되어 덕수초등

학교 언덕에 세워졌다. 서울대 미대학장, 제6대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을 역임한 조각가 최만린교수가 아나운서 생활을 잠깐 했다는 인연으로 무보수로 유허비를 제작했다.

방송인이라면 한번쯤 유허비를 찾아 방송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바라고 동시에 앞으로 방송의 날 기념식을 첫 방송터인 덕수초등학교 운동장 계단 위에 설치된 유허비 앞에서 치를 날을 기원해 본다.

## ●회원 리포트●

## 중국의 딜레마, 그 속에서



조 현 모(보도)

늦깎이 중국 유학생활동을 시작 한지 1년 반. 학생 신분인 처지에 얼마나 많이 보고 겪었겠냐만 쑥스러움을 달래며 학인(學人)으로서 느낀 단상을 옮겨본다.

중국의 총 인구가 14억은 벌써 넘었고, 올 대학입시 응시생 숫자만 950여만 명이라 한다. 일단 크고 많은 걸 으뜸으로 치면 자금성과 경복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듯이 大國을 어찌 小國이 넘보리요? 규모에 놀려 위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8천만 명이나 지체 장애자라는 통계를 접하거나, 대학에 유학생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반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걸 보면서 그 대국의 치부(恥部)를 보여주는 쪼잔함을 읽은 적도 있다.

대만에서는 국부(國父), 대륙본토에서는 민주혁명 선각자로서 양쪽 어디서나 추앙받는 유별난 역사적 인물이 손문(孫文)인데, 그의 젊은 날 고뇌에서 역설적인 위안을 느낀 적이

있다. 백년 전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배포 아래 <건국방략>총서 집필에 골몰하던 즈음 ‘오호라, 땅 넓고 인간 많은 게 오히려 어려움이구나~’라고 간파했던 바로 그 대목에서다. 손문은 당시 4억 중국인들이 “반상(盤床) 위의 모래알”과 같으며 장탄식을 하지만 개탄에만 그치지 않았던 게 그의 빛나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모이게 해서 민주적인 토론을 거쳐 확고한 동의를 구해내 나라를 새로 세우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며 능히 그럴 수 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이때 핵심적인 방략으로 언어를 아교처럼 쓰도록 간곡하게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창시한 국민당이 압도적 군사력에 주로 기댔다가 패하고 말지만.

그런데 오늘날 중국 집권층이 대중을 설복한답시고 항용 쓰는 말들을 일반 백성들과 함께 매체에서 접할 때 그 언어의 신뢰성이 이미 퇴색됐음을 엿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같은 아주 핵심이 되는 말이다. 이걸 뒷받침 하느라 학자들도 무진 애를 쓰는걸 보

지만 중국특색의 어마어마한 부패현상을 빼놓고 설명하니 힘없는 이들은 그저 멍하니 들을 수밖에. 하루하루가 고달픈 중국 인민들의 모래알과 같은 속성은 손수레장사 터 확보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야하는 장터에서 쉽게 목격된다. 조금 억울하다 싶어도 때리지 못하고 삿대질만 한다.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알아?”, 혹은 “에이~!”

또 하나, 술하게 다녔던 한적하고 조용한 공원 등에서도 도무지 책이란 걸 보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문학소녀적 감성의 어느 할머니교수가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잘 살게는 되었지만 그 뒤의 안 좋은 세대에 대해 욕을 하는 소설이나 비평, 문학다운 문학은 죽었어요. 모두 정치 때문이지요.”라며 나지막하게 말해줄 때 웬지 고마웠다. 어느 혈기왕성한 젊은 작가가 <그들만의 나라>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아래 소설을 발표해 주목을 끈 적도 있기는 하지만 매스컴에 그런 담대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유언비어가 확대되어 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여의치 않으면 페이스 북마저도 아예 못 쓰게

끔 잡아버리는 곳이 중국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앞날은?

대부분 “뭔가 공허하긴 한데 어둡지는 않다.”라고 씩 웃으며 응대한다. 그 고도의 낙천성, 게을렀던 중국인들을 고개 숙인 경주마처럼 달리게 만드는 주요 동력은 무엇일까? ‘돈’과 ‘꿈’이다. (경제이야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좋으리라.)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는 공익광고 문구가 바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적당한 크기의 세 글자 슬로건이다. ‘이것은 당신의 꿈이기도 합니다.’라는 작은 글자까지 읽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된다.

또 하나, CCTV 국제채널 중 <海峽兩岸>이라는 고정프로는 대만 관련 소식만을 다루는데 시청률이 낮아도 연중 쉬는 날을 본 적이 없다. 1949년에 태어난 新중국 탄생 100주년인 2049년까지는 반드시 대만과 통일한다는 목표를 깔고 방송한다. 상업적 공영방송인 MBC에서 30년 세월을 보낸 사람으로서 또 나아가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점은 유학 초창기부터 참 부러웠다.

## ●인생 이야기●

## 음악의 숲에서 얻은 씨앗으로 2모작을



유 혜 자(편제)

MBC에 입사했을 때 제일 반가웠던 것은 레코드실에 꼭 차있는 클래식 음반이었다. 그 시절 국내에서는 음반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에 유명 음악실에서나 보던 음반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다. 전쟁 때 피난갔다가 9.28수복 후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고향읍내로 돌아왔을 때 폭격당하지 않았던 극장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와 영국민요 ‘산골짜기의 등불’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모차르트의 ‘소아곡’ 등을 들려주어 전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달래주었다. 위안이 되었던 클래식 음악들은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말, 타지로 전학 갔기 때문에 그리워하면서도 들을 수 없었다. 서울에 진학 후 음악실 ‘돌체’나 ‘르네상스’에서 갈증을 축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자주 갈 만한 여유가 없었다. MBC入社로 개인취향

의 음악을 레코드실에 가서 듣지는 못해도, 작정하면 들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MBC FM에 클래식음악프로그램이 단 하나 남았던 1990년, FM부에 발령 받아 6개월 동안 그 프로그램을 맡았었다. 그래서 감히 클래식음악에세이를 쓰게 되었다.

문과 출신이어서 1972년에 방송삼화집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출간 이후 다섯 권의 수필집을 내고 소재의 확충을 꾀하던 나는, 감동적인 선율에 얽힌 얘기가 작곡가, 연주가의 일화를 수필적으로 접근하는 ‘음악에세이’를 시도했다. 그 때는 음악가와 명곡에 대한 책도 시중에 두 세권 정도 나와 있었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정보가 거의 없었다. 레코드실 담당부장(1992년)을 맡았을 때는 틈틈이 레코드 재킷 안에 남아 있던 해설지(해설지가 없는 것들이 더 많았음)를 보며 음악에세이 쓸 준비를 했다. 마침 『월간에세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연재(1995.11-1997-12)

해줘서 사기가 진작되었고 독자들의 좋은 반응도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1998년 정년을 몇 달 앞두고 열심히 써서 『월간에세이』에 연재했던 것들과 신작들로 첫 음악에세이 『음악의 숲에서』를 출간할 수 있었다. 정년퇴직 후, 당시 『한국기독교공보』의 사장이던 MBC의 동료 고무송 목사님의 배려로 『한국기독교공보』에 격주로 6년 동안이나 연재하게 돼서 정년 이후의 무료함을 느낄 겨를이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우리 생활에서 음악의 비중이 커졌다. 음악치료도 하고, 음악 듣기가 임산부의 태교와 젖소의 젖 짜기에 도움이 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한다는 것은 고전에 속한다. 인기 있던 ‘그린 음악 쌀’은 오전엔 모차르트 음악을, 오후엔 농악을 들려준다고 한다.

예술가의 깊은 고뇌와 고통의 생애가 흐뭇한 감동의 실제적인 열매가 되어 좋은 음악에세이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불꽃놀이처럼 먼저 피어

난 불꽃이 다른 불꽃들을 터뜨리는 묘미도 기대한다.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감명 받아 드라마로아는 좋은 그림을 그렸고 베를리오즈와 차이콥스키는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다. 또한 브람스는 당대 바이올린의 명장 사라사테의 연주회에 갔다가 크게 감명 받아 바이올린 협주곡을 쓸 결심을 했다고 한다. 정년 후 내게 중요한 것은 음악에세이 쓰기다. 그동안 『수필세계』 『헌정회보』 『한국수필』의 연재로 『음악의 숲에서』 이후 『차 한 잔의 음악읽기』 『음악의정원』 『음악의 에스프레소』 등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다. MBC 레코드실이라는 음악의 숲에서 얻은 씨앗으로 2모작(二毛作) 인생에 성공한 셈이라면 누가 동의해 줄지 모르지만 MBC에는 무한히 감사하다. 스마트폰 시대여서 아무리 좋은 명저라도 읽지 않고 외면당해서 문인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음악과 우리와의 사이에 아름다운 가교를 잇기 위해 오늘도 좋은 씨앗을 만나고 싶어 CD를 걸고 있다.

## ●여행기●

## 에베레스트에 대한 향수(鄉愁)



김영철(편제)

고교선배들이 졸업45주년 기념으로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마침 올해 결혼35주년이 되는 해라 아내랑 함께 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 따라가기로 했다. 꼭 한 번은 그 대자연속에 빠져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막상 결심을 하고나니 불편한 잠자리, 식사 등 많은 것이 걱정되었다. 8박9일간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첫째 날: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포카라에 도착, 지프를 타고 힐레마을로. 힐레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 3시간 조금 더 걸어서 첫 번째 트레킹의 숙박지 울레리(1,960m)에 도착했다. 고도는 높지 않았으나 경사(돌계단)가 매우 가팔라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일행들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했다.

▶둘째 날: 오늘의 목적지는 푼힐 전망대 아래 고레파니(2,860m). 경사가 적고 नेपाल의 국화인 라리구라스(Laliguras)가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이어진다. 즐겁게 트레킹 하던 중 오후들어 천둥에 우박을 동반한 강한 비를 만난다. 이후 트레킹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매일 오후 비가 내렸다. 만발한 붉은색의 라리구라스가 너무 현란하고 올라가는 길에 수 백마리 양떼가 길을 내려온다. 장관이었다

▶셋째 날: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白眉라는 푼힐전망대(3,193m)에 올랐다가 고레파니로 복귀, 타다파니(2,630m)까지 가는 일정이다. 새벽에 무거운 몸으로 기상해 무려 330m를 올라 푼힐전망대에 올랐으나 빗방울이 떨어지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역을 하고 분했다. (날씨가 좋으면 전망대에서 안나푸르나 남봉(7219m), 마차푸차레(6997m), 다울라기리(8167m) 등 8000m급의 히말라야 설산들을 볼 수 있다) 기분도 엉망인데 비는 아침부터 계속 내리고 짐을 다시 싸는 것조차 힘들고 버겁다보니 아내와 한바탕했다. 기분도 안 좋고 하루종일 비가 내린 탓에 주변구경도 못하고 마냥 걷기만 했다.(날씨가 좋으면 고레

파니에서 타다파니까지의 트레킹코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한다)

▶넷째 날: 타다파니 롯지(lodge)에서 바라본 아침 풍경이 장관이었다. 안나푸르나 남봉, 마차푸차레, 히운출리 등 7,000m급의 고산연봉이 펼쳐진다. 오늘은 추이레, 촌룽을 거쳐 시누와(2,360m)까지 가는 일정인데 12km 거리에 8시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 실제로는 10시간 가량 걸렸다. 가는 길에 룡다(깃발)가 세워진 마을들, 수많은 계단식 밭(남해 다랑이마을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과 계곡을 이어주는 출렁다리와 끝없는 밭밭들이 펼쳐졌다.

▶다섯째 날: 뱀부를 거쳐 데우랄리(3,200m)까지 가는 가장 힘든 코스인데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탓인지 가도 가도 롯지는 나타나지 않고 비는 계속 내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체온은 점점 떨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롯지에 막 들어서려는데 어젯밤 시누와 롯지 식당에서 만났던, 대구에서 왔다는 일행 중 한사람이 구토를 하며 쓰러져 들려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아내와 일행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마늘수프와 비아그라를 먹고 침낭에 핫팩을 네 개나 넣고 자고 나니 아침에 그런대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체력고갈과 저체온으로 인한 고산증세라 했다.



▶여섯째 날: 이제 하루만 걸으면 된다. 어제의 후유증으로 천천히 걷다 보니 지금까지의 풍광과는 전혀 다른 광활하고 웅장한 산세가 펼쳐진다. 가파르게 선 거대한 봉우리들과 쾌청한 하늘. 세계 3대 美峰이라는 마차푸차레(6,997m)가 바로 옆에 올려다 보인

다 오전 중에 MBC(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3,700m)에 도착,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 이후로는 눈길이라 아이젠을 착용하고 서서히 전진, 이제 400여m만 오르면 목적지에 도착한다. 아내와 보조를 맞추며 꾸준히 고도를 올리다보니 드디어 ABC(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4,130m)에 도착, 아내와 감격의 포옹을 했다. 밤새도록 엄청 추웠다.

▶일곱째 날: 아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내려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서고 안나푸르나 일출이고 뭐고 만사가 귀찮지만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싶어 천근같은 발걸음을 겨우 옮긴다. 날씨는 쾌청하고 해 뜨기 전 풍광도 아름답지만 별경계 산봉우리들이 물들어가며 일출이 연출하는 안나푸르나 연봉이 장관이다. 사진찍기에 열중하다보니 30분도 채 안됐는데 어느새 안나푸르나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게으름을 피웠으면 어쩔 뻔 했나, 날씨 탓에 푼힐전망대



보인다. 마음이 짠하다. 이제 하산이다. 이틀이나 걸려 올라 온 뱀부까지 하루 만에 내려가야 한다.

▶여덟째 날: 오늘은 촌룽을 거쳐 지누단다까지 내려간다. 거리도 멀고 오르내림이 심해 어려운 길에 강한 비까지 만났다. 롯지에 도착, 산행이후 한 번도 못했던 샤워를 하고 일행들과 맥주 한잔을 했다. (이 롯지에서 한밤중에 개에게 다리를 물려 नेपाल에서 두 번, 귀국 후 국립의료원에서 세 번, 총 다섯 번의 광견병백신을 맞았다. 假定이지만 만약 미친 개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홉째 날: 드디어 하산이다. 지누단다에서 시아울리까지 몇 시간만 내려가면 지프가 대기한다. 쨍쨍한 날씨라 모두들 한 고생씩 한다. 하산 도중 원숭이가 굴린 돌에 낙석사고를 당할 뻔 했던 아내가 뒤쳐져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걸 보니 목이 멘다, 드디어 시아울리에 도착,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고 나니 살 것 같다.

\*後記\* 귀국한지 불과 2주 만에 우리가 둘러보았던 카트만두의 유적지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것을 보고 삶과 죽음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 ●특별기고●

## 김종학,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

-2週忌를 맞아 그를 추모하며-



민용기(편제)

‘모래시계’ 방송이 종료되고 얼마 후인 1995년 3월 초 김종학PD와 통화했다. “세상을 한번 들었다 놓았지? 수고했다. 그런데 실은 방송을 한 번도 못 봤다. 두 달간 LA에 있었거든.” “LA엔 비디오 없던가요.” “일부러 안 봤다.” “왜요?” “‘모래시계’ 잘되면 MBC 작살나는 거고, 안되면 김종학이 죽는 거라 차라리 안보는 게 편했어. 누군가 대단했다고 하길래 ‘여명’보다 잘 됐냐 했더니 그 몇 배는 더 하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나중에 네 시간짜리 편집한다니까 봐야겠다.” “전부 보셔야죠. 테이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이 처음 눈에 들어 온 것은 1979년 늦가을. 이태리의 스칼라 오페라단을 초청해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을 준비 중일 때였다. 박 대통령 시해사건과 맞물려 비싼 돈을 주고 초청한 공연이 과연 성사될까, 총책을 맡은 입장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김광수 차장이 세종문화회관으로 찾아왔다.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우리 부에 있는 김종학이가 드라마를 하겠다고 성함니다.” “야, 바쁠 때 헛소리하지 마. 공연이나 끝내고 봐” 우리 끼리는 이렇게 말이 거친 게 애정의 표시이기도 했다.

“개가 지금 공연 준비팀에 차출돼 있어요.” “어, 그래? 그럼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해.”

당시는 국제가요제라든가 해외 대형공연 같은 게 있으면 PD들이 차출되곤 했다. 김종학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 다녔다. 어느 날 그와 마주쳤다. “김 차장 얘기 들었다. 너 드라마 하고 싶다면? 아무나 드라마 하는 거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신입 사원들이 연수 마치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에 배당 받는 일이 왕왕 있었다.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쪽에 지원자가 많이 쏠리고 또 처음부터 신입사원들의 적성과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일부가 자리를 옮겨달라고 집요하게 몰고 늘어져 골치 아프기는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경우, 성공한 사례들이 많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김종학이 드라마로 자리를 옮겨 첫 조연출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야외촬영을 마치고 돌아 온 한 여자 탤런트가 이런 말을 했다. “김종학 AD 있잖아요? 현장에 도착하자 뛰기 시작하는데 전 그렇게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AD는 처음 봤어요.”

PD들이 입사 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모와 좌절을 겪는 시기가 조연출, AD시절이다. 명색이 일류대학을 나왔다는 자들이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면 ‘아, 이제 나도 PD다’ 하는 기쁨과 희망에 들뜨는 것도 잠시다. 그들에겐 AD라는 지옥같은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AD가 하는 일은 연출과는 거리가 먼 막노동과 잡무투성이다. 테이프 들고 뛰기, 슬라이드 챙기기, 엑스트라 동원하기, 야외촬영 때 여관 잡기에서부터, 술 담배 심부름, 촬영 끝나면 제작기획서 쓰고 결재 받기, 출연료 챙겨주기 등등



온갖 뒤치다꺼리가 그의 몫이다. PD는 물론이고 기술, 미술 스텝에서 탤런트나 출연자들로부터 전혀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이 때다.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이 프로 저 프로 끌려 다니며 흑사당한다. 일주일이면 7일간 집에 못 들어가고 사무실 책상 위에서 새우잠을 자는 사나이들. 그들의 자조 섞인 말대로라면 그야말로 아니꼽고(A) 더러운(D) 계절이다. 90년대前後해 비로소 업무의 세분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정신

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딱으로부터 알아본다고,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내일의 명 PD’들은 어딘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 PD의 눈빛만 보고도 뭘 원하는지를 눈치 채 입안의 혀처럼 재빨리 움직이고, 야외촬영에서 밤늦게 돌아 와 녹초가 되는 날이라도 다음날 녹화 준비를 빈틈없이 해내는 놈들. 이런 조연출자는 새 프로가 시작될 때 PD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신경전을 벌일 정도다. ‘대장금’의 이병훈, ‘공화국’시리즈의 고석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황인뢰, ‘아들의 여자’의 이관희,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송창의 등은 이미 AD시절부터 PD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아 온 자들이다. 김종학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77년 입사, 82년 김PD가 처음 맡은 프로는 ‘암행어사’였다. 80년대 초의 열악한 제작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무술액션을 처음 개척한 드라마로, 한 사람의 PD가 달랑 한 사람의 AD를 데리고, 매주 홍콩 무술영화를 방불케 하는 60분짜리 액션 사극을 찍어낸다. 이병훈PD가 처음 시작하였고 조연출로 따라다니던 김종학 PD에게 넘겨준 것이다.

“아니 저 놈 봐라. 저런 씬을 어떻게 찍어 낸 거야?”

당시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한 장면들을 그는 연속 만들어 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1984년 9월, MBC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드라마 60분 5부작 ‘동토의 왕국’을 일주일간 방송한다. 이 드라마는 국민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당시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옮겨 본다.

‘충격 속 관심. 凍土의 王國. 北傀蜃를 삼입. TV反共劇 事實化 접근’ (조선일보 84.9.15)

‘凍土의 王國. 反共드라마의 새 방향 보여졌다. 實證性 높아 공감 불러’ (동아일보 84.9.17)

‘다큐멘터리 眞髓보인 凍土의 王國. 생생한 現場感 일품. 재미에서도 성공’ (중앙일보 84.9.17)



뿐만 아니라 신문사설이 TV단위프로그래를 다룬 것은 이 때가 처음인 듯싶다.

‘凍土의 王國, 反共홍보를 事實的·實證的 수준으로’ (조선일보 사설 84.9.16)

방송평이라면 물어뜯는데 익숙한 신문들이 보인 반응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동토의 왕국’은 조총련 단원이었던 재일동포 김원조씨의 ‘북한기행’이 원안이다. 어느 날, 유흥렬 부장에게 드라마가 되겠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반공 드라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흥렬 부장에 관한 여담 한 가지. 언젠가 유 부장이 옛날 중앙청 保安司에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하루 밤 내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다가 다음날 저녁에 별 일 없으니 나가라고 하더라.

밤새 잔뜩 겁먹고 있던 그는 걸음아나 살려라 하고 문 쪽으로 걸어 나가다가 말고 돌아서며 느닷없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

수사관들이 모두 어리둥절했다. ‘집에 가라’면 백이면 백 감지덕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빼는 것이 대부분의 연행자들인데 ‘이건 무슨 똥판지같은 놈이야?’라고 생각했다.

“하루 밤 가뒀다 그냥 풀어주려면 미안하다고 소주라도 한잔 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 기절초풍했다. 그날 밤. 그는 수사관들과 코가 비틀어지게 소주를 마셨다. 모두 노련한 대공전선의 베테랑들이라서 술 마시는 품도 거칠었다. 유흥렬은 한편 겁도 났으나 그 또한 술이라면 두주불사. 그들은 밤새 10년 지기처럼 가까워졌다. 그 후에도 자주 만나서 독주를 험악한 모양새로 마셨다.

그들의 일부가 80년에 전두환이 안기부를 손볼 때 안기부로 옮겨졌고, 이래저래 안기부와 보안사는 그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 '동토의 왕국'을 제작할 당시 안기부 언론국장은 김근수씨.

그는 中情 공채 1期인 엘리트로, 남북 관계의 앞날에 대하여 '언젠가는 남북협상이 이루어져 제한적이지만 왕래가 있을 것이니 서서히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쪽이 후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전향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다. MBC가 유흥렬 부장을 앞세워 김 국장에게 접근했다. 결과, '이것이 북한이다' '남북적십자 회담' '만경봉호' '피바다' '금강산' 등 다섯 편의 미공개 영상자료를 드라마에 이용하라고 MBC에 독점 제공했다. 초유의 일이었다. 이것이 이 드라마에서 평양거리는 물론 김일성 생가, 평양대극장, 가극 "피바다", 평양백화점, 탁아소, 김일성 동상, 평양역 등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 시청자에게 처음 보여주게 된 계기다.

야외녹화 첫날, 간첩신고센터와 회사로 엄청난 문의 전화가 걸려와 진땀을 뻘었다. '평양대극장'의 촬영지 장충단 국립극장에 대형 김일성 초상화, 구호가 쓰인 붉은 플래카드, 인민공화국 깃발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전화였다. 김일성 생가와 만수대를 위해 경주 안압지와 보문단지에 오픈세트를 세웠다, 평양역은 전주역에서. 만경봉호는 전남 완도에서 로케했다. 수용소 씬은 대전의 옛 형무소에서. 그런가하면 등산전문가들도 두려워하는 설악산 죽음의 계곡으로 연기자들과 50여명의 엑스트라를 끌고 올라가 금강산 촬영의 모험을 걸기도 했다. 이 드라마의 성공은 김종학의 승리였다. 10년 후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를 제작한 김종학의 비범함은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동토의 왕국' 후, 김종학은 '영웅시대', '북으로 간 여배우' 등 대형특집 드라마를 제작해 잠재력을 연거푸 폭발시킨다. 그의 주가는 빠르게 상승한다. 상승에 비례해 그는 궁지에 몰리기도 한다. 그는 촬영현장에서 냉혹한 쪽이다. 밤새 촬영을 강행하고 잠깐 눈 부치고 새벽에 연기자들을 현장으로 다시 몰아붙이는 스파르타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적은 인원, 나쁜 환경에서 것처럼 제대로 된 그림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촬영 장면이 맘에 안 들면 10미터가 넘는 눈 덮인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연기를 몇 번이고 반복시킨다.

대개의 연기자들은 그와 촬영을 끝내고 돌아올 적에 '다시는 그의 드라마에는 출연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출연포기를 결심했던 연기자들도 방송된 드라마의 그 기막힌 영상과 완성도에 매료돼 다시 그에게 다가간다. 그의 주변엔 진짜 드라마가 하고 싶은 연기자들이 모인다.



그의 첫 좌절은 그 무렵에 찾아온다. '조선왕조500년' 시리즈의 '회천문', '남한산성'에 연이어 투입된다. '암행어사'가 그의 데뷔작이긴 했지만 사극은 그의 마당이 아니었고 사극을 소화하기엔 아직 젊었다. 그는 도중 하차한다. 김종학은 한동안 방황한다. 그 무렵 그는 '숙명적'일 수 있는 작가 송지나를 만난다. 두 사람은 만화 원작을 드라마화한 '퇴역전선'(1987)에 이어서 미니 시리즈 '선생님, 우리 선생님'(1988), '우리 읍내'(1988) 등을 연속 제작했고 그 후 힘을 바탕으로 하는 김종학과 섬세하고 예리한 송지나가 하나 되어 만든 것이 김홍신 원작의 '인간시장'(1988년)이다. 방송에서 현실 사회비판이 터부시 되던 시절, 과감한 사회성 드라마로 성공한 최초의 드라마다. '드라마왕국' MBC라는 애칭이 달리 붙은 것이 아니리라.

새 시대를 맞은 MBC는 요동치고 있었다. 회사가 흔들리면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시청률은 곧 두박질치고 엉뚱한 프로그램만 춤추고 있었다. 역경을 헤쳐 나오는 방법 중의 하나가 큰 기획을 연속적으로 선보이는 것이다. 최종수CP와 김종학PD를 만난다. 김종학은 미니시리즈 '제5열'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첩보드라마를 성공시켜 승기를 다시 잡은 후였다.

"이제 뭔가 더 큰 것을 할 때가 안됐을까? 대하드라마를 하나 기획하는 건 어때?" "그렇잖아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 정리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MBC드라마의 강점이다. 늘 깨어있다. "그게 뭐데?"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김성종의"

최종 정리된 제작기획안은 1990년 초 완성됐다. 각색은 송지나, 60분 28

부작. 실제 방송은 36부작. 국내와 해외촬영을 연내에 끝내고 그 해 12월 MBC 창사30주년기념 특집으로 한다는 일정이 잡혔다. 예산승인이 떨어지지 제작팀은 바빠진다. 세부일정, 세부예산, 장소 헌팅, 해외 헌팅 스케줄, 그리고 배역. 이야기는 태평양전쟁에서 해방으로, 다시 미군정을 거쳐 6.25로 이어지는 폭 넓은 시대 배경과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현대사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종군위안부 윤여옥(채시라) 최대치(최재성) 장하림(박상원), 세 사람이 드라마의 축이다. 종군위안부가 최초로 방송에 등장한다. 배역은 언제나 고민이다. 배역은 작가, 연출과 더불어 드라마 성공의 삼대 요소 중의 하나다. 최대치는 최재성, 장하림은 박상원으로 낙착했는데 윤여옥이 난산이었다.

"끝까지 안 되면 다시 와. 내가 한 사람 추천할 수도 있어." 내 그냥 해본 소리네.

"누군데요? 웬만한 탤런트는 죄다 검토했는데, 지금 얘기해주세요. 한시가 바빠요"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건데, 얼마 전 비몽사몽간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시더니 '여옥 역은 이 애박에 없도다' 하더라." 옛날 옛적 동화같은 이야기.

"그게 누군데요?"

"채시라"



채시라는 촬영기간 내내 김 감독을 애먹인 배우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의 도시적 분위기가 여옥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고 이렇게 큰 역을 소화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PD의 생각이었다. 채시라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온 몸을 던져 결국 해냈다. 채시라가 연기자로서 진정 눈을 뜬 것은 "여명의 눈동자를 끝낸 후부터"라고 모두들 이야기한다. 몇 년 후 그녀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탤런트'(1994 중앙일보 조사)로 부상하고 스타연기자의 자리를 굳힌다.

1990년 5월 3일, 정동 스튜디오에서 제작진과 연기자들이 모여 고사를 지낸다. 순조로운 제작 진행과 성공을 기원하는 조촐한 행사다. 같은 해 7월, 일본을 시작으로 필리핀, 사이판

의 촬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필리핀에서 기다린 것은 살인적인 더위와 질병 등 예상 밖의 복병들이었다. 스케줄 대로 촬영이 진행될 수가 없었다. 해외촬영의 경험부족과 어려움을 실감했다. 필리핀서 돌아온 제작팀은 중국촬영의 연기를 호소했고 중국촬영은 당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 정비하고 다음 해가 되어서야 가능했다. 그런데 필리핀의 어려움은 중국에 비하면 차라리 '유람'이었다. 아직 사회주의 체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1991년의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없었다. 약속과 계약은 휴지에 불과하고 계약당사자인 정부 측에서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공문으로, 구두로 지시해도 현장은 늘 요지부동이었다. 가는 곳마다 텅으로 손을 벌려 돈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고 돈을 뿌려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한 예로, 동원되는 엑스트라의 집합은 언제나 예정보다 두 시간 정도 늦었다. 아침 점호 때 120명의 엑스트라 인원이 점호종료 후 30분이 지나면 반 이상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무리 확정기로 악을 써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러다 저녁 점호 시에는 전원 빠짐없이 집합한다. 아침, 저녁 두 번의 점호를 받아야 출연료가 지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김종학의 비명이 나올 정도였다. 두 번에 걸친 해외촬영, 제주도의 일 개월, 겨울의 지리산과 설악산,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다.

1991년 10월 초, 비로소 방송의 전파를 탄다. 세 번에 걸쳐 편성일을 연기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예정보다 1년 늦게 방송됐다. 마지막 날 방송은 방송 10분 전에 편집이 끝나는 긴박한 상황까지 몰렸다. AD가 방송 테이프를 들고 편집실에서 주조정실까지 100미터 경주하듯 뛰어야 했다.

60분짜리 36회분. 두 시간짜리 영화로 쳐도 거의 열 세편인데 영화에 못지않은 활력과 긴장과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이다. 기획에서 방송까지 2년 여에 걸쳐 김종학과 그 제작팀의 초인적인 힘이 기적을 이뤄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MBC 30년 역사와 전통과 능력과 힘의 응집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우리나라 TV와 영화에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 낸 '여명의 눈동자'는 그 이전과 이후의 드라마에 커다란 획을 긋는다. '여명의 눈동자' 이후 우리 드라마는 눈부시게 비약한다. 김종학, 그가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첫 주 방송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다.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방송프로그램은 언제나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드물다. 종군위안부로 끌려 온 윤여옥(채시라)과 최대치(최재성). 철조망을 사이에 둔 30초의 처절한 이별의 키스 신.

TV 화면에서의 키스 신을, 그것도 그렇게 긴 장면을 처음 대하는 점잖은 심의위원들이 신랄하게 윤리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신문도 시끄러웠다. 시끄러우면 PR 되고 나쁠 것 없다고 자위하지만 일부에서 방송중단 운운하여 방송사를 긴장시켰다.

다행히 비극적인 상황이 두 사람의 키스 신을 덮고도 남는다는 제작진의 간절한 호소를 방송위원장(고병익)이 수용해서 사태는 간신히 수습된다. 5개월 후, 방송이 종료되고 특집드라마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축연이 있었다. 고 위원장은 축하에서,

“저는 이 드라마의 성공을 축하하는 오늘 이 자리에 까딱 잘못했으면 참식할 수 없는 불행을 겪을 뻔했습니다. 당시 방송이 중단되었거나 또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면 이 자리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축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폭소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2년 후, 1993년 봄. SBS가 파격적

인 거금으로 김종학을 유혹한다. 그는 잠시 흔들렸으나 곧 냉정을 되찾는다. MBC는 그가 성장한 고향이었다. 비록 벽창호들이 한구석에 버티고 있긴 해도 창작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는 자유의 나라 MBC.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 5월에 강성구 사장이 부임하고 첫 정기 인사가 있었다. 김종학이 승진에서 제외된다. 그는 열이 치민다. 관리부서의 동기생 S의 승진을 보고 나서 더 분노한다. ‘내가 회사에 끼친 공로가 그보다 못하단 말인가?’ 고민은 계속된다. ‘여명의 눈동자’를 마치고 난 후 회사는 ‘장려금이다, 해외 위로여행이다’ 하고 인센티브를 떠들었으나 임원들이 교체되면서 모두 공수표였다. 그는 당시 MBC프로덕션에서 영화제작에 몰두했다. 송지나와 함께 대본 “불사조”(不死鳥)를 완성했다. 해외 현지답사도 마치고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 이 기획은 무산된다. 그 때 MBC사장이 교체된 것이다.

새 수장(首長)은 대개 전임자의 기획과 업적을 부정한다. 해서 연속성은 언제나 없다. 같은 회사, 같은 정부 내에서 이것은 반복된다. 김종학은 위에 어필했지만 그를 더욱 참담하게 만든 것은 새로 구성된 10층(임원실)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그는 포기했던 SBS로 발길을 돌린다. 5월 말, 최종계약의

서명을 남기고 그래도 마음에 걸려 새 사장을 직접 만난다.

“김PD가 남아서 드라마를 살려줘야 뉴스데스크가 살고, 우리 방송이 다 사는 길이 아닌가.”

‘아! 떠날 때가 됐구나. 보도출신 사장은 안중에 보도만 있구나. 드라마가 뉴스의 부속물이라니! 저 분 밑에서는...’ 김종학은 MBC를 떠난다.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를 뛰어넘는 ‘모래시계’가 그의 고향이 아닌 SBS에서 방송된다. 방송사적 사건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모래시계’는 MBC를 KO시킨다. 김종학PD를 그냥 흘려버린 것이 누구였을까.

‘모래시계’는 50년 텔레비전 사상 최고의 드라마다. 아직도 ‘모래시계’를 뛰어넘는 드라마는 없다. 김종학 자신도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김종학 프로덕션’을 차리고 영화진출을 몇 번 시도했으나 기대에 못 미친다.

영화와 TV가 겹보기에는 유사한 것 같으나 실상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서로 물이 다른 것이다. 그는 다시 TV로 돌아온다. 송지나와 손잡고 야심 찬 몇 편의 드라마 제작에 나섰으나 부진했다. 그가 이미 오른 산이 너무나 높고, 그 밑 계곡 또한 너무 험하고 깊었던 것이라. ‘모래시계’ 후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드라마 외주제작의 선두주자. 그는 경영자로서, 프로듀서로서 제2의 도전을 맞고 있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큰 기동인 김종학PD. 그가 큰 일을 또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는데.....



2013년 7월23일, 김종학PD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안하다'는 유서를 가족에게 남기고.

FUJIFILM

FUJINON

HD FIELD BOX LENS

XA99x8.4BESM  
TELEPHOTO HD LENSXA77x9.5BE5M  
TELEPHOTO HD LENS

4K

35mm PL MOUNT LENS

ZK2.5x14  
14-35mm, T2.9ZK3.5x85  
85-300mm, T2.9ZK4.7x19  
19-90mm, T2.9백두인터내쇼날(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1  
TEL : 02)575-6433, www.fujinon.co.kr